"복지 미흡" 불만 GGM, 공동복지 '올인'

상생형 내일채움공제 신설…공공임대주택 등 정부 건의

주거비 지원…주택 우선 공급 관련 법령 개정 추진

국내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둘러싸고 "복지 수준이 기대 이하"라는 내부 불만이 터지고 퇴직 행렬이 끊이질 않자 광주시와 회사 측이 공동복지프로그램 마련에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광주시는 12일 "GGM 근로자들의 실질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에 시행 중이던 공동복지프로그램의 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월 20만원 수준인 무주택자 주거비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 광주시의회 등과 논의할 예정이고, 재직자 대상 맞춤형교육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또 지난해 9월 제도 개정으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대신할 '상생형 내일채움공제' 신설을 연초 행정안전부 신규사업으로 신청해 컨설팅 자문위원을 구성 중에 있다.

아울러 GGM 근로자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빛그린산단 배후단지인 산정지구에 주택건설비용의 80%가 지원되는 국토부 일자리연계형주택 건립 공모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GGM과 관련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6월에는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요청해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달 12일에는 주거비용 지원, 국민·민영주택 우선 공급, 상생일자리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대기 중에 있다.

소위 '반값 임금'으로 기업을 유치한 뒤 주거, 교통, 교육 등 공동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임금'을 제공한다는 '노사상생발전 협정서'에 기반한 조치들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복지 수준"이라는 내부 근로자들의 볼멘소리도 이같은 복지행정에 채찍이 되고 있다.

실제 GGM상생협의회 근로자 대표들은 최근 시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시가 1인당 700만 원의 사회적 임금을 약속하고도, 실제 지원액은 1인당 161만 원에 불과하다"며 당초 약속과 다른 복지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배후주거단지도 2029년 하반기에나 준공될 예정이고, 이마저도 GGM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비 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도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첫 채용이 시작된 2020년 3월 이후 퇴직자가 50여 명, 퇴직률이 8%대에 이르는 점도 과제다. 전기차 시장으로의 재편을 위한 후속모델 개발도 발등에 불로 떠오르고 있다.

/김용범 기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전국 최다

전남도 5월말 현재 농식품부 371개소 선정, 전국 18%

전남도는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가 5월말 현재 371개소로 2년 연속 전국 최다를 유지하면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전국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는 총 2114개로, 전남이 전국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 336개, 경북 233개, 경기 212개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2차 제조가공, 3차 유통·판매, 체험관광 등과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최근 2년간 평균 40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린 경영체다.

인증을 바라는 경영체는 시군 농업부서나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인증 절차는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한다.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민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경영체의 기초 역량과 산업 기반,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지역사회와 자원의 연계·활용성 등을 평가하고, 농식품부가 선정한다.

인증경영체로 선정되면 1대1 경영컨설팅, 홍보마케팅, 남도장터·홈쇼핑 등 온·오프라인 판매지원, 신제품 개발 등 융복합 강화사업을 비롯해 융자금을 지원받는다.

전남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의 운영 활성화와 생산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지원하고 있다. /박종배 기자

광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하반기 접수

광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섰다. 상반기에만 187명에게 67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주거비 마련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결혼지원 정책 중 하나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주민등록과 임차주택이 모두 광주에 소재해야 한다. 또 2021년 1월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대출 또는 연장 대출을 받은 사람만 해당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출금액의 월별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안에서 자녀수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차등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까지다.

시는 7월1일부터는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를 통해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취급은행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되며, 신청서류 심사 후 지원 대상 여부를 알려준다.

/권형안 기자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하는 유엔 특별보고관 12일 오후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이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뉴시스

무안~울산 하늘길, 다시 열린다…내달 1일 재취항

하이에어, 제주·김포 노선 25일부터 주 1회 증편

전남도는 소형항공사인 하이에어가 오는 7월1일부터 무안~울산 노선을 재취항하고, 제주와 김포 노선은 오는 25일부터 주 1회씩 증편한다고 10일 밝혔다.

무안~울산 노선은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취항한 이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탑승률 저조로 10월 말 운항을 중단했지만 최근 국내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 필요성과 관광 수요 증가 예상에 따라 재취항하게 됐다.

운항 일정은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 주 2회, 울산공항에서 오후 6시 30분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에 7시 30분 도착하고,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오후 7시 50분 출발해 울산공항에 8시 50분 도착하는 일정이다.

현재 전남 서부권에서 350㎞ 떨어진 울산으로 가려면 승용차 기준 4시간 이상 걸린다. 무안~울산 항공노선을 이용할 경우 이동 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돼 두 지역 간 경제활동은 물론 관광객 이동의 한 축을 담당함으로써 동·서 간 소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주 2회 금요일과 일요일 운항 중인 무안~제주, 무안~김포 노선은 주 1회씩 증편한다. 금·토·일 주 3회 운항하면서 무안국제공항의 국내선 운항이 3개 노선에 주 8회로 늘어나게 됐다. /박종배 기자

민선8기 인수위원회 '듣는다 우체통' 개통

새로운 광주시대 시민들의 의견 반영…오는 30일까지 운영

민선8기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는 '새로운 광주시대 민선8기 당선인에게 바란다 '듣는다 우체통'을 개통해 운영에 들어간다.

준비위원회는 민선8기 지역발전의 힘이 되는 정책을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를 개설해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민선8기 시민의 행복과 광주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

정책제안을 원하는 시민은 바로소통(https://barosotong.gwangju.go.kr)에 마련된 배너를 클릭하고,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제안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제안분야는 ▲총괄 ▲산업·창업·경제 ▲돌봄·교육·건강 ▲도시·안전·교통 ▲관광·문화예술·체육 ▲공공혁신·ESG이다.

김준하 위원장은 "시민과 함께 당당하고 빠르게 광주를 변화시키겠다는 강기정 당선인의 철학에 맞게 민선8기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전남지역 대학, 국책사업 대거 선정

바이오·에너지 분야 등 4개 사업 국비 1천125억 확보

전남도는 도내 대학의 국책사업 선정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대학과 연구기관·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토록 하는 등 컨설팅에 적극 나선 결과 7개 대학이 바이오와 에너지 신산업 등 4개 분야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1천202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가 1천125억 원이다.

부처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오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의과학 선도연구센터사업 공모에는 목포대의 바이오 메디슨 첨단제형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사업, 동신대의 비위(脾胃)조절기반 Gut(腸)-Brain(腦) 기초의과학 연구센터사업이 선정됐다.

산업부의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사업 공모에는 순천대와 목포대, 동신대, 3곳이, 교육부의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공모에는 순천제일대, 전남과학대, 목포과학대, 목포대, 동신대, 목포해양대가 선정됐다. /조일상 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내삶이 행복한 광산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84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2억 4,1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30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 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